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담당 : 경실련 정치입법팀 T. 02-3673-2141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제목 : [보도자료]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총 2매)

보도일자 : 2024. 03. 05. (화)

배포일자 : 2024. 03. 05. (화)

[취재협조요청]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천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양대정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을 비롯한 심사 기준을 평가하고, 전과 보유 및 재판 진행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대정당의 자체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양대정당 부적격 심사기준이 실효성 없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